

규제연구 제16권 제1호 2007년 6월

# 기업지배구조와 비공식제도

- 미국 전문경영 사례를 중심으로 -

사공영호\*

본 연구는 전문경영을 특징으로 하는 미국의 기업지배구조가 형성될 수 있었던 근원은 비공식적 제도에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주장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미국 사회는 전문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비공식제도와 관행이 형성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원들을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전문경영의 도덕적 전제가 되는 정직·성실·계약준수·협력과 같은 행동규범들과 대리인을 통해 공통사무를 수행하는 관행은 청교도 정신, 서부개척, 자율적인 기업조직화 전통, 정부권한이 제한되고 봉건적 경험이 없는 미국 사회의 역사적 경험과 전통 등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둘째, 미국 사회의 전통적 규범과 관습에 비추어 보면, 전문경영은 이들 전통적 규범과 관습의 외적 표현 또는 확장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경영에 필요한 도덕적 규범들은 수많은 제도화 매체들을 통하여 마음의 습관으로 내재화되고 학습·전수되고 있다. 종교, 가족생활, 헌법, 법과 정책, 각종 조직(시민단체와 정당 등)에의 참여, 문학작품과 신문 등 문화매체, 영화, TV프로그램 등에 의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런 규범들을 학습하고 내면화하게 된다. 또한 미국 사회에서 대리인에 의한 공동체 사무의 수행은 전혀 낯설거나 새로운 방법이 아니며, 수많은 역사적 경험들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확산되어 있는 방법이다. 이런 규범과 관행에 비추어 보면, 미국의 전문경영은 역사적인 규범과 전통에 기초하여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진화된 것일 수 있으며, 내재화되고 습관화된 규범을 따르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유지될 수 있는 자기집행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지혜와 관행을 경영인과 주주 간의 관계에 확대 적용하면 그것이 바로 전문경영이 된다는 점에서 보면 일종의 전통과 관습의 동형적 확대이며, 내면화된 규범의 외적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핵심용어: 기업지배구조, 비공식제도, 전문경영, 청교도 정신, 습관화, 제도화

\* 평택대학교 행정학과,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111번지 ([sakongyh@ptu.ac.kr](mailto:sakongyh@ptu.ac.kr))

접수일: 4/30, 게재확정일: 6/13

## I. 서 론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고, 관련 연구들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지배구조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거의 이사회,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M&A시장, 기관투자가, 회사법, OECD 권고안 등 공식 제도에 집중되어 있다.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그것을 탄생시킨 역사적 뿌리에 대한 통찰이나 제도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고 변화의 경로를 결정하는 문화, 규범, 공통 신념 등 비공식 제도에 대한 고려를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식제도를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논의하는 것은 지배구조의 본질과 핵심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오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제도연구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공식제도는 전체 제도의 일부일 뿐이며, 더구나 핵심적인 제도가 아닐 수도 있다(예: Hayek, North, Greif, Weingast 등). 또한, 제도연구자들에 따르면 제도라는 것은 해당 사회의 역사와 문화의 산물이며(예: Weber, Tocquville, Hayek, North, Offe 등), 따라서 이를 옮겨 심는 것은 결코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예: North, 2006: 21; Tribe, 1972: 84).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지배구조는 미국식 역사와 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미국 사회의 여건에서만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으며, 한국과 같이 전혀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진 사회에서는 기대하는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미국 기업과 지배구조의 역사를 보면, 각종의 공식적인 규제들(예: 회사법, 판례, 연방정부의 규제들)이 전문경영체제로의 발전에 토대를 제공하거나 외적 통제장치들이 전문경영인에 대한 안정적인 감독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에서 지배구조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라 할 수 있다(정호열, 1999; 이성웅, 1999; Holmstrom & Kaplan, 2001: 121).<sup>1)</sup> 그러나 전문경영체제는 19세

기 후반부터 이미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조영철, 2002: 19), 1929년에는 금융분야를 제외한 200대기업의 44%가 전문경영인을 통제할 대주주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주식소유가 분산되어 있었다(Berle & Means: 1932: 109).

본 연구는 전문경영체제를 핵심으로 하는 미국 기업의 지배구조는 다수의 연구자들이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공식제도의 산물이라고 설명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설계한 제도들에 의하여 형성된 창작물이나 설계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청교도 정신, 상업 및 실용주의 전통, 서부 개척 등과 같은 역사적 경험과 문화가 축적된 진화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본 연구의 핵심적인 관심은 미국 기업의 전문경영이 정부에 의하여 고안·지도·감독되는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인가 아니면 미국 사회의 전통적인 계약·관습·습관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었던 제도인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지배구조에 대한 기존의 연구시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본 연구의 접근 시각을 모색하고, 둘째, 미국 사회의 비공식제도의 구성요소와 형성과정을 역사적인 분석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셋째, 전문경영의 수립 과정에서 비공식제도와 공식제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평가·논의해 보고자 한다.

## II. 기존 연구의 검토: 접근 시각의 모색

### 1.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 경향: 비판적 검토

외환위기 이후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들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나, 연구 경향에는 몇 가지의 뚜렷한 특징이 발견되고 있다. 첫째로 대다수의 연구들이 공식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논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지배구조에 대한 한국 사회과학도들의 연구 경향을 분석해 본 결과, 88.7%에 해당하는 연구들이 공식제도를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관찰이

1) 예를 들어, Holmstrom&Kaplan(2001)에 의하면 1980년대 이전 미국의 CEO들은 주주의 이해를 기본목표로 삼아야 할 이유가 거의 없었다.

용이한 법적이고 공식제도적인 현상이나 시장 현상을 주요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배구조의 문제를 단지 공식제도의 문제로 보는 것은 사회현상에 대한 지나치게 얇고 편의적인 접근방식이며,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결론이나 정책건의에 도달할 위험이 높다.<sup>3)</sup>

이 연구가 사례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미국에서 자본주의와 시장질서의 발전과정은 Weber(1976)나 Huntington(2006)의 관점에 기초하여 보면 프로테스탄트 정신의 유산과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려운 현상이며, Hayek(1996, 1982)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이성적 능력에 의하여 설계되거나 고안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이 축적되고 확장되고 진화된 자생적인 질서의 일부분이다. 또한 Tocquville(1996)이나 Berger&Luckmann(1966)의 관점에서 보면 일상생활(daily life) 속에 녹아 있는 자유와 자치의 관습, 특히 마음의 습관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고, North(1990, 2006)의 연구를 토대로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경험되고 축적된 관습과 문화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다. 설사 바람직한 의도에서 바람직하게 공식제도가 만들어지더라도 사

2) 본 연구는 지배구조에 대한 기존의 연구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의 검색시스템에서 국내학술지(학위논문·책 등 제외)를 대상으로 지배구조를 제목의 키워드로 하고 있는 논문들을 검색하여 분류해 보았다. 그 결과 1차적으로 584건(2006년 8월 26일 기준)이 검색되었으며, 이 중 시사 잡지의 기사로서 학술적인 논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을 제외하고 380건의 논문을 제목·키워드·요약·목차·본문(일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공식제도에는 정관 기재사항(이사회·사외이사·감사위원회·주주총회 등), 법·정책·법의 결정과 집행을 담당하는 입법부, 행정부와 법원, 각종 시장과 기관투자자, M&A 시장 등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비공식제도에는 관습·규범·신념·문화 등 소위 비공식제도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제도의 사회적 배경이나 역사적 근원에 관한 연구들을 포함시켰다. 공식제도와 비공식제도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경우는 종합으로 분류하고, 분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분류	건수	비율
공식제도	337	88.7
비공식제도	13	3.4
종합	7	1.8
기타	23	6.1
합계	380	100.0

3) 알다는 것은 사회나 사회제도 변화의 역사성이나 사회성을 무시한 채 너무 쉽게 단편적, 표피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의미하며, 편의적이라는 것은 단지 연구나 자료접근 또는 결론 도출의 편의를 위하여 현상의 뿌리나 근원 자체에 대한 이해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람들의 마음과 행동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공식제도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관찰된 제도의 효과를 공식제도가나 정책의 효과로 당연시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회에 사회·문화적인 전통과 특성을 이식하여 성공하기도 쉽지 않다(North, 2006: 19).

물론 미국에서도 지배구조의 문제를 논의할 때는 주로 공식제도의 문제를 논의한다. 그러나 이는 단지 정책대안의 선택을 위한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공식제도들의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비공식제도를 재론할 필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지 비공식제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다. Huntington(2006)이나 North(2006)는 오늘의 미국을 있게 한 문화의 뿌리로 여전히 종교를 논의하고 있고, 그 영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두 번째의 경향은 한국 지배구조의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의 비중(72.6%)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너무나 쉽게 사회현상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대형의 재벌기업들이 부실화되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빈발해왔고, 외환위기까지 겪었기 때문에 지배구조의 개선에 연구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결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배구조에 접근하는 시각이다. 문제가 있다면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특히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경제·정치·사회적인 원인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는 배제한 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배구조와 관련된 우리의 제도들은 우리의 과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우리 역사의 산물이다. Hayek(1996)나 North(1990, 2006) 등의 연구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지배구조에도 나름대로의 지혜가 축적되어 있고 과거의 경험은 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물이다.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문제라고 쉽게 생각하고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현상 자체는 단지 증상에 불과한 것으로 문제의 근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문제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근원과 뿌리를 찾아내기 전에는 문제의 원인을 지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역사적인 결과물에 접근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과거의 선택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인식 자체에서 근본적인 차이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Carr&Davis, 1987). 이를 망각하고 자신의 관점과 현재의 관점에서 타인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면 사회는

발전적인 변화가 아니라 소모적인 개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기 쉽다. 서로가 남을 탓하는 상황에 빠져들기 쉽기 때문이다(Kahan&Braman, 2006: 163).<sup>4)</sup> 문제의 원인에 대하여 오판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당사자의 입장,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지배구조는 당연히 고쳐야 할 문제라고 단정하기에 앞서 왜 우리의 창업자들은 그런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제대로 된 처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셋째, 외국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 역시 대다수의 연구들이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할 수도 있는(Black, 1990) 외형적인 현상을 비교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전문경영이 발생하게 된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단지 기업은 어차피 같은 것이고, 그렇다면 지배구조를 참고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Snake Eye’와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다(Olson, 1982: 42). 즉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우연히 두 개가 모두 1일 나오자 앞으로 계속 둘 다 1이 나올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앞길도 다르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당장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 기업들은 이런 식의 지배구조를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어도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전혀 아닐 수도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현실을 지각하고 판단하고 행동 대안을 선택한다.

게다가 많은 연구자들은 지금 관찰 가능한 공식제도들이 전문경영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였고 또 지금도 그런 제도들이 전문경영인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엔론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모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제도들은 한결같이 전문경영인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들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제도가 탄생하고 진화하게 된 사회·문화적인 유래와 이의 정상적인 작동을 지탱하고 있는 핵심적인 힘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배제한 채 단지 다른 나라에서 이런저런 제도를 하고 있고, 이

4) 이들에 의하면 사람의 지각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상대방의 입장은 잘못되고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런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니 우리도 이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주장을 흔히 접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 논리는 미국의 서부에 낙타를 서식시키려고 도입하거나(Friedman, 1988: 36),<sup>5)</sup> 렘브란트의 그림에 피카소의 그림을 조합하려는 것과 같은 무리한 정책 시도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Tribe, 1972: 84).<sup>6)</sup> 공식제도의 토대가 되는 비공식제도가 동일하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지배구조와 관련된 비공식제도에 대한 연구들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지배구조에서 비공식제도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납득시킬 만한 연구는 부족하다. Tocquville, Weber, Hayek, North 등의 연구들이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분명 문화·전통·종교·비공식제도와 같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정신·마음·관습·질서와 같은 것들이다. 하지만 한국의 연구자들은 이런 부분을 거의 제외한 채 공식제도의 연구에 집착하고 있다.<sup>7)</sup>

## 2. 비공식제도 연구의 한계

한국의 정책연구자들이 비공식제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비공식제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경향과도 관련이 있다. 첫째는 문화·관습·규범 등의 비공식제도는 어떤 사회의 구성원들의 마음속이나 비공식적인 관습 속에 내재화되어 있는 그야말로 비공식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사회현상에 대한 비공식제도의 영향을 실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연구방법이나 분석차원의 제약이 있다. 비공식제도를 조작이 가능한 독립변수화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비공식제도에 대한 연구에서 국

5) 식민지 시대의 미국이 문서상으로 수백 개의 영국식 법원을 설립하였으나 부질없는 것이었음은 비유한 Friedman(1988)의 표현임.

6) 목적론적인 해답을 찾기 위하여 전체를 배제한 채 부분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춘 정책접근을 한계를 비판하는 Tribe(1972)의 표현임. 렘브란트의 그림처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사회에 피카소의 그림을 잘라와서 붙이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임.

7) 지배구조의 변화를 비공식제도의 영향에 의한 경로의존성의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연구(김석용, 2000), 지배주주의 기회주의적 행위와 회계정보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최강득·송준엽·안홍복, 2004), 한국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시킨 연구(황말동, 2001), 지배구조의 변화에 대한 문화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검토한 연구(하태수, 2002) 등 최근 들어 비공식제도의 요인이 지배구조에 미친 영향을 다루는 연구들이 극히 소수이나마 제시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비공식제도의 역할이나 중요성을 충분히 납득시키기에는 아직도 어려움이 있다.

가나 지역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이 흔히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를 들면, 동일한 민주주의 법제도가 남아메리카에서는 성공하지 못하거나(North, Summerhill, and Weingast, 2001), 동일한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였음에도 이탈리아 북부에 비하여 남부에서는 성과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Putnam, 1993), 유사한 시기에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하여 자본주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국가 간에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Offe, 1993), 대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사회와 출현하기 어려운 사회(Fukuyama, 1995) 간의 차이 등을 비공식제도의 차이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다른 요인들은 통제된 상황에서 비공식제도가 달라질 경우 제도의 성패가 달라지고 있으므로 제도의 성패는 비공식제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 이들 연구들의 주된 논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법의 논리에 의한 설명은 국가 간 비교를 통하여 차이의 영향을 분명히 보여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독립변수의 어떤 차이점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하여 종속변수의 차이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설명에는 소홀하기 쉽다는 약점이 있다. 즉 이들 연구들은 식민지배라는 역사적 요인이나 사회자본, 신뢰와 같은 비공식제도에 의하여 제도의 성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특히, 사회자본이나 신뢰는 전문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전문경영에 대한 비공식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예: Fukuyama, 1995). 그런데 이런 비공식제도들이 정작 어떻게 형성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연구들이나 관련 연구들을 통하여 충분한 설명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이다.<sup>8)</sup>

둘째, 비공식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나 구성요소들이 있으며, 이것들은 어디에서 온 것이고 또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8) 비공식제도의 영향에 관한 사회적 차원의 연구에서는 공식제도 자체의 결합이 무시되기 쉽다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서구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 제도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들 제도가 결합이 없는 제도인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면, 미국식 지배구조의 약점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 사례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배구조 역시 공식제도(예: 이사회·사외이사·정부감독기구 등) 자체만을 놓고 보면 상당한 결합이 있는 제도이고(예: SEC, 2002; Schwartz, Dunfee, and Kline, 2005), 그렇게 때문에 비공식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비공식제도의 영향을 강조하다 보면 공식제도 자체도 상당한 약점이 있다는 것은 간과하기 쉽고, 그래서 공식제도들이 실패하는 것은 비공식제도의 결핍이나 약점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예: Putnam, 1993; Fukuyama, 1995). 틀린 결론은 아니지만 제도의 실패에 대한 완전한 해답은 아니다. 제도의 실패는 공식제도의 결합과 비공식제도의 부재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해야 더 정확하다.



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North는 문화·전통·관습·규범·공통된 신념 등을 비공식제도의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문화, 구체적으로 어떤 관습과 규범, 어떤 전통이 비공식제도로써 개인의 행동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궁금증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Hayek는 자생적인 질서로 개인소유·정직·계약·교환·무역·경쟁·소득과 개인의 자유를 따르는 규칙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디까지나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질서라고 지적하고 있다(Hayek, 1996: 36-37). Hayek가 강조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이성에 의한 창조물이 아니라 오랜 시행착오 속에서 문화적인 진화와 관습의 축적을 통하여 자생적으로 형성된 질서라는 것이다. 그런데 Hayek 역시 정직이나 계약의 질서를 가능하게 한 문화와 관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까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종교라는 것이 이런 전통을 수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임을 지적하지만(Hayek, 1996, 제9장), 이 역시 어떤 종교의 어떤 측면이 어떻게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sup>9)</sup>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전문경영방식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충분한 지침을 얻을 수 없으며, 이의 수립이 어떻게 가능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도연구자들이 강조하는 비공식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병행되어야만 전문경영의 성공여건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9) 이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런 비공식적 요소들은 이미 역사적으로 주어지거나 생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 근원이나 유래보다는 제도의 변화경로에 대한 영향이나 비공식제도의 기능적인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다. 비공식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런 것들은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재산권 제도, 특허법, 유한책임제도 등과 같은 공식제도의 영향을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예: North&Thomas, 1973). 비공식제도가 주어지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공식제도를 수립하느냐가 사회의 발전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3. 접근 시각의 모색

#### (1) 접근 시각

이상에서 언급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비공식제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한국의 정책 연구자들이 제대로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책이나 공식제도의 성과가 비공식제도에 의하여 결정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를 포함하는 공식제도의 진화과정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비공식제도나 정직, 계약질서와 같은 자생적 질서의 형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서도 이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한계점들에 대하여 보완적인 설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비공식제도의 보다 구체적인 근원을 추적해 보는 작업이다. 즉 전문경영의 도덕적 토대가 되는 정직과 성실, 계약문화 등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근원들을 역사적 경험 속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비공식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자생적 질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Hayek나 North의 연구에서 이미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이 말하는 종교·규범·관습·전통·정직·계약·시장·공통된 신념과 같은 비공식제도나 자생적 질서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한 단계 더 깊이 추적해 보고자 한다. 이들이 말하는 비공식제도나 자생적 질서의 구성요소들은 한국인이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형성한 인식과 개념을 단순히 확장시켜서는 정확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설사 동일하게 종교(religion)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인들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는 미국 역사 속에서 경험된 종교이며, 한국의 사회과학도들이나 한국인들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는 한국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경험한 종교다. 당연히 관습화되어 있는 정도나 개인의 행동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예: Weber, 1976; Huntington, 2006; Bellah, *et al.*, 1996). 미국인들이 법이라고 할 때의 법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법과는 사뭇 다르다. 서구에서의 법을 한국어로 법으로 바로 옮기는 것은 법의 역사적 발달경과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며, 서구에서 법에 스며 있는 종교성을 일거에 삭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해롤드버만·김철, 1992: 81-82).

공식제도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재산권(property rights)과 같은 개념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재산권은 인간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자연권의 하나이며(황해성, 1990: 1), 신이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주었고, 서로 도적질을 금지함으로써 사유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종교적인 배경까지 가지고 있다(송병락, 2001: 19). 어쩌면 우리가 미국 사람이 되어 보기 전에는 미국의 사회과학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개념들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결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인간이란 문화적 존재로서(homo cultural, Dequech, 2003: 364), 그가 속한 문화의 논리 속에서만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관행들을 가지고 있으며(Mayhew, 1987: 976), 또한 자신이 속한 문화에 기초하여 제도를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Denzau & North, 1993: 8).

본 연구가 첫 번째 수행하려는 작업은 Hayek나 North와 같은 연구자들이 우리가 납득할 만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이 없이 사용하고 있는 종교나 관습, 자생적 질서라 부르는 요소들이 도대체 실제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그들의 역사와 사회적 현상 속에서 추적해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전문경영 역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유추하는 비공식제도가 아니라 서구의 연구자들이 비공식제도로 말할 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비공식제도가 무엇인지를 최대한 그들의 역사 속에서 추적해 봄으로써 그들이 말하는 비공식제도의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하도록 노력해보자는 것이다.

본 연구가 수행하려는 두 번째 작업은 비공식제도의 구성요소들이 실제로 개인의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문화이론에서는 이런 것들은 문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동의 규칙이 되고 준수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비공식제도가 끈질기게 생존하고 행동규칙으로 작용하는 이유를 문화라는 속성 자체에서 찾기 때문에 순환논리에 빠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문화란 어떤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이고, 구성원들은 이것이 행동방식이므로 따른다는 논리기 때문에 반증이 불가능하다(민경국, 2002: 78). 예를 들면, 청교도 정신에 뿌리를 둔 기독교문화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정직하게 행동하고 이웃에 사랑을 베푼다거나 또는 단지 선조들이 이미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따른다는 설명이다. 이런 정도의 동어반복에 가까운 설명만으로는 전통이나 관습과 같은 비공식적 제약들이 개인의 행동에 작용하는 방식을 충분히 납득할 수 없다.

본 연구가 수행하려는 두 번째 작업은 비공식적 요인들이 실제로 개인의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에 초점을 둘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언급해야 할 사항은 본 연구는 어디까지나 이미 발생한 전문 경영이라는 사회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역사적 상황들을 거꾸로 추적하여 보고, 또한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 방식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설명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사회적 변화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이런 변화를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연구라는 점이다.

##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첫째, 비공식제도의 근원에 관한 추적과 둘째, 비공식제도의 제도화 현상과 비공식제도와 관행의 확장에 의한 전문경영의 수립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연구목적에 의한 것이며, 따라서 본 연구 역시 제도는 여러 가지 유형의 개별 제도들의 집합이며, 공식제도와 비공식제도 간에는 Helmke&Levitsky(2004)가 제시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관계유형들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sup>10)</sup>

미국의 지배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공식제도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식제도는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범위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며, 전문경영이 발전할 수 있었던 제도 수립의 토대와 제도 진화의 뿌리는 비공식

10) Helmke&Levitsky(2004)는 공식제도와 비공식제도의 결과가 수립하는지 여부와 공식제도의 효과성 등 두 가지 기준에 의하여 공식제도와 비공식제도의 관계를 유형화하고 있다. 비공식제도를 따를 때의 결과와 정책을 엄격하게 준수하였을 때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두 제도는 수렴적인 것이며, 물론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divergent). 서류상에 존재하는 규칙이나 과정이 실제로 집행되고 순응되어 실제 개인의 행동 선택을 제약한다면 공식제도는 효과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공식제도와 비공식제도 간의 관계를 분류하면 네 가지의 관계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보완적(complementary)인 관계에 있을 경우는 비공식제도가 정책과 공식제도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단지 서류상에만 머물렀을 수도 있는 공식제도에 순응할 동기를 형성하고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헌법이 유효한 것은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대와 신념이 이를 보완하기 때문이며(North, Summerhill, and Weingast, 2000), 사회규범이 내생적으로 지켜질 때 법이 가장 잘 지켜지는 것은(Etizioni, 2000: 165)은 비공식제도의 보완작용 때문이다.

제도에 있다는 것이 연구의 입장이다. 예를 들면, 1890년 제정되어 합병과정에서의 금융자본의 지배를 강화하였던 셔먼법이나 경쟁기업의 인수와 경쟁기업들 간의 임원겸임을 금지하였던 클레이튼법(1914),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업무를 분리하여 금융자본의 산업자본에 대한 지배를 약화시켰던 글래스-스티걸법(1931) 등이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런 법의 제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와 경제력집중에 대한 견제의 심리가 작용하였고(Roe, 1994; Bork, 1978), 결과적으로 이런 공식제도들이 전문경영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 지배구조의 선택에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조영철, 2002). 그러나 이들 공식제도들이 전문경영의 토대와 뿌리가 될 수는 없다.

이 연구가 비공식제도의 형성과 습관화·제도화의 문제에 중점을 두는 것은 비공식 제도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에 대한 문제가 한국의 정책연구자들 간에는 여전히 피상적으로만 이해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작용하였다. Helmke&Levitsky(2004)의 관점이나 Fukuyama(1995), Gillan, Hartzell, and Parrino(2005), Macaulay(1963)<sup>11)</sup> 등의 연구를 보면 미국의 지배구조는 비공식제도가 공식제도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수렴적 관계

		공식제도의 효과성(effective formal institution)	
		effective	ineffective
공식제도와 비공식제도 산출물의 수렴여부	convergent 수렴	complementary 보완적	substitutive 대체적
	divergent 서로 다름	accommodating 긴장된 공존	competing 경쟁적

비공식제도는 공식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대신하여 행동규칙을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substitutive). 정책이나 공식제도가 설계되었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을 비공식제도가 대신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공식제도가 개발되기 이전이나 무력할 때 질서를 유지하던 것은 비공식제도들이었다(Gutmann: 2001: 118; Greif, 2004: 4; Holcombe, 2004: 325-327). 또한, 규범이 법을 보완하기도 하지만, 규범에 의하여 개인의 행동이 충분히 뒷받침될 경우 법에 의하여 거래관계를 보완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Etzioni, 2000: 165; Macaulay, 1963: 64).

11) Fukuyama(1995: 81-101)는 미국의 전문경영이 토크빌이 일찍부터 지적하였던 연대의 기술이나 상호 간의 신뢰에 기초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있다. Gillan, Hartzell, and Parrino(2005)에 따르면 2000년의 경우 500대 기업의 절반 이상이 CEO와 포괄적인 서류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 계약이 아예 없거나 기업과 CEO와의 관계에 관하여 일부의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묵시적 계약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시장과 비공식제도의 힘에 의한 통제를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Gillan, Hartzell, and Parrino, 2005: 3). 또한 Macaulay(1963: 60-61)는 일반적 거래관계에서도 법적 제재보다는 상호 간의 신뢰와 거래관계의 유지 동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실사 문제가 생기더라도 법적 제재와는 상관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통이며, 법적 분쟁과 관련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은 드물며, 소송으로 상호 간의 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먼저 우려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에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기업과 전문경영인들은 엔론, 월드컴 등의 부정회계사건으로 떨어졌던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다시 회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한국경제신문 2007. 5. 1). 그런데 이에 대하여 미국의 언론은 사반스-옥슬리법과 같은 정부의 개입이 아니라 기업들이 순전히 경영적인 이유(purely business reason)에 의하여 진화하여 이룩한 결과이며, 또한 경영인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가치(personal values)를 기업의 경영과 접목한 데서 찾고 있다.<sup>12)</sup> 전문경영체제가 사회적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 경영인들의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의 경향은 이러한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 지배구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식제도들의 한계에 대한 연구들이 이미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sup>13)</sup> 이를 보완하고 있는 비공식제도에 대한 연구들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또한 한국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공식제도 이상으로 비공식제도가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도 이 연구가 굳이 비공식제도의 근원과 영향력에 초점을 두는 원인이 되었다. 기초가 튼튼하다면 그 위에 세울 수 있는 집은 어떻게 설계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 만일 전문경영인들이 정직하고 성실하다면 소유가 분산되어 주주의 견제능력이 약화되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미국형의 경쟁적 경영자 자본주의도 좋고, 독일이나 일본형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형의 지배구조도 가능할 수 있다. 기초가 튼튼하다면 각 사회는 자신들의 선호와 여건에 맞는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기초 자체가 연약하다면 그곳에 세울 수 있는 구조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설사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이 기업의 성장에 더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립할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전문경영의 안정적인 제도화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원하는 구조물을 건축하려면 그것을 지탱하고 견딜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지, 만일 토대가 약하다면 튼튼한 토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토대는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이 연구는 전문경영이 정착되는 과정보다는 어떤 비공식제도

12) 예를 들면, GE의 Jeff Immelt 회장은 환경, Starbucks의 회장 Howard Schultz는 근로자 이익, FedEx 회장 Fred Smith는 자원 보호, DuPont 회장 Chad Holliday는 자원 재생 등의 가치들을 주창하면서 전문경영인들이 스스로 기업에 대한 인식을 회복하고 있다(Fortune, 2007. April 30 참고).

13) 미국에서 전문경영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구조에 대한 공식제도들의 여러 가지 한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공영호(2006)의 연구를 참고할 것.

가 전문경영의 견고한 토대가 되고 있는지, 이 토대가 어떻게 형성되고 제도화될 수 있었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비공식제도의 제도로서의 효과와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공식제도 자체의 형성 근원과 심리적·사회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Ⅲ. 전문경영의 토대가 되는 비공식제도의 근원

#### 1. 전문경영<sup>14)</sup>의 비공식제도로의 환원

비공식제도 자체도 사회와 문화, 역사에 따라 매우 여러 가지 구성요소를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 사회의 전문경영을 가능하게 한 비공식제도는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을 것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 우선 전문경영을 비공식제도로 한번 환원하여 보자. 전문경영이라는 기업의 주주와 전문경영인 간의 계약관계를 개인의 행동 특성으로 환원하면 무엇이 되겠느냐는 것이다. 계약당사자들이 어떤 비공식적인 제약들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고 있을 때 전문경영관계가 성립하고 안정적인 사회제도로 발전할 수 있겠는가?

전문경영을 비공식제도로 환원하기에 앞서 생각해야 할 것이 미국식 전문경영의 독특성이다. 미국의 전문경영방식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폭 넓은 재량권을 전문경영인에게 부여하고 있다.<sup>15)</sup>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재량권이 그에 상응하는 공식적 통제를 전

14) 전문경영이란 보통은 소유경영에 대비되는 것으로, 전문경영인에게 기업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권과 재량권이 집중되어 대리인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지배구조를 의미한다(장대홍, 2003: 24; 조영철, 2002: 14). 이 연구에서의 전문경영 역시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주로 미국의 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문경영인에게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Berle&Means, 1932), 이들이 거의 통제받지 않는 권한을 과거에는 행사해 왔으며(예: Lorsch, 1990; 워드, 1997), 전문경영인의 권한과 재량권에 대하여 감독 장치가 온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을 뿐 아니라(예: Schwartz, Dunfee, and Kline, 2005), 의도적으로 부정회계를 할 경우는 감독이 쉽지 않은 것이 미국에서의 전문경영의 현실인 것으로 보고 있다(NCFER, 1987: 1). 따라서 전문경영이란 비공식제도의 도움이 없이는 미국에서와 같이 100여 년 이상 안정적인 지배구조로서 제도화되고 뿌리내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인식을 포함하고 있다.

15) 물론 미국의 대기업들이 모두 전문경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듀폰, 코닥, 리복, 켈로

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미국 전문경영방식의 진정한 독특성이다. 이사회는 서류상의 형식적 존재였으며, 70대까지만 해도 거의 영구이사를 선임하여 왔다(워드, 1997: 27-37). CEO가 이사회의장을 겸하면서 모든 안건의 진행을 통제할 수 있고, 사외이사 역시 'old boy network'에 지나지 않았다. 보수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스톡옵션 등 어느 제도하나 전문경영인에 대하여 명확한 견제효과가 입증되지 않고 있다(임영재 외, 2003: 121; 이성웅, 1999: 185; 노일석, 2002: 254; Lorsch, 1990; Mizruchi, 2004: 585). 엔론사태의 원인을 조사하였던 의회의 정부위원회는 Enron의 명백하고 광범위한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감독기관 중 어떤 기관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정도로 감독기관들은 무력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sup>16)</sup> 법원의 감독 역시 경영판단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에 따라 전문경영인에게 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경영상의 실패에 의한 법적 책임이라는 정신적 부담감에서부터 전문경영인들을 해방시키고 있다(홍복기, 1986; 윤보옥, 2000; 정봉진, 2002 등).

이러한 공식제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문경영이 100여 년 이상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비공식제도는 어떤 요인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인가? Coase(1937)와 Williamson(1973; 1996)의 거래비용이론에 비추어 보면 양자 간에 기회주의적 행동의 동기가 없고, 경쟁적인 전문경영 인력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면 전문경영에 따른 거래비용은 거의 사라지게 된다. 전문경영 인력시장 역시 전문경영인의 정직한 정보공개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면, 결국은 전문경영인의 기회주의동기의 정도가 전문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라 할 수 있다.<sup>17)</sup> 기회주의적인 행동 성향이 강한 사회에서는 개인과 조직구성원에게 넓게 재량권을 인정하는 조직방식(예: 전문경영방식)이 뿌리내리기 힘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Fukuyama, 1995). 다시 말해, 전문경영인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믿을 수 있다면 전문경영인에게 경영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

그 등 기업들이 가족기업에서 전문경영으로 발전하여 왔으나(Fukuyama, 1995; ), Microsoft와 같이 여전히 창업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와 논의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역시 전문경영인들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미국의 기업들이다.

16) Senate Committee on Governmental Affairs, 2002, Financial Oversight of Enron: The SEC and Private-Sector Watchdogs, p.2.

17)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응용하여 이해할 수도 있다. 만일 전문경영인과 기업의 주주들이 절대적으로 상대가 약속을 지킬 것으로 신뢰할 수 있다면 양자 모두 쌍방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전략을 선택하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쌍방에 모두 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는 것이 주주와 전문경영인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다. 전문경영을 비공식제도 요소로 환원하면 경영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정직성, 주주의 이익실현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노력하는 성실성, 비개인적인 거래 (impersonal trade)를 가능하게 하는 개방성 등이 되며, 이 연구의 주된 관심은 이런 것들이 어떤 근원에서 유래하고 있으며, 어떻게 실제로 개인의 기회주의적 동기나 행동을 제약할 수 있게 되는가에 모아져 있다. 미국식 전문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비공식제도의 근원을 먼저 추적해 보자.

## 2. 청교도 정신

미국 사회를 연구하였던 사회과학도들은 누구나 청교도 정신을 이야기한다. 사실상 미국 사회의 모든 제도들의 뿌리가 청교도 정신에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평등과 공화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예: Tocquville), 자본주의(예: Weber, Hayek, North),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공동체에 대한 헌신, 직업을 소명으로 여기는 근로의식(예: Bellah, Huntington), 독립정신과 헌법(North, Summerhill, and Weingast, 2000)을 비롯한 각종 공식법규(해롤드버만·김철, 1992) 등 미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제도들 중에 청교도 정신에서 나오지 않거나 이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초기 식민지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 문화에서 성서적 종교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토크빌은 “미국 전체의 운명이 해변에 첫발을 디딘 첫 번째 청교도들에게 달려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미국 실험의 출발점에서 종교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Bellah, et al., 1996: 28). 청교도주의가 정치와 문화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였던 Miller 역시 식민지개척 초기부터 미국의 생활과 사상에서 청교도주의가 하나의 지속적인 요인으로 확립되었으며, 후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청교도 정신을 계승하였기 때문에 청교도 정신은 미국 사회의 발전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였고, 따라서 청교도주의를 이해하지 않고는 미국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Miller, 1956: ix; 김성근, 1999: 203에서 재인용). 청교도 정신이 ‘American Mind’로 확대되었으며(Bercovitch, 1975), 단지 종교적 교리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일종의 심리적 상태(Manning, 1990: 71-72)로 미국인들

의 마음속에 내재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Weber와 Durkheim이 말하는 근대사회의 역동성(송재룡, 2005: 131)과 자본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오로지 서구에서만 발견되는 윤리의 근원, 프랭클린이 근대 직업윤리의 알파와 오메가로 지적하고 있는 직업에의 충실함의 근원(프랭클린, 2006), Hayek가 확장된 질서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지적하는 정직과 도덕의 근원(Hayek, 1996: 260-265) 역시 청교도 정신과 기독교 정신이다.

청교도 정신의 핵심이 무엇이고 도대체 어떻게 미국 사회의 발전에 기본적인 행동규칙과 공통된 이념을 제공하였기에 미국 사회를 연구하는 사회과학도들은 한결같이 결국은 공통된 의문, 즉 청교도 정신과 기독교문화에 대한 탐구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인가? 베버가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던 프로테스탄트는 16~17세기 자본주의가 가장 앞섰던 영국·네덜란드·프랑스 등에서의 칼뱅주의에 기초한 프로테스탄트 정신이라 할 수 있으며(차성화, 1997: 81),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청교도주의는 프로테스탄트들 중에서도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에 정착하였던 정착민들의 기독교정신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우선 차이가 있다. 이들 청교도들의 정신 역시 간단히 요약하기는 쉽지 않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Weber, 1988; Bellah, et al., 1996; 김성곤, 1999; 해롤드버만·김철, 1992 등).

우선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일에 대한 생각이다. 프로테스탄트나 청교도에서 직업이란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단지 생계수단으로서의 직업이 아니다(Weber, 1988: 60-61, 177; Bellah, et al., 1996: 65-71). 이들에게 있어서 직업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calling)이다. 우선 베버에 의하면, 프로테스탄트들이 직업에 대하여 갖는 인식은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의 산물로서, 직업에서의 의무이행은 신이 주신 현세적 의무를 완수하여 신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웃사랑의 외적 표현으로 여겨진다. 직업만이 신의 뜻이며, 따라서 허용된 모든 직업은 신 앞에서 같은 가치를 갖는다. 이런 사상을 미국의 청교도들에게서도 그대로 발견된다. 직업을 소명(calling)이라고 할 때는 개인의 일과 사람을 도덕적으로 분리할 수 없게 만드는 특성과 행동의 실질적인 이념을 함축하고 있다(Bellah, et al., 1996: 66). 개인이 자신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도 직업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개인을 동료 및 공동체와 연결하고 모두의 선에 봉사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도 일이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통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게 하는 것이 소명이라는 점에서 일이란 결코 오로지 사적인 것만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뉴잉글랜드의

정착촌은 이런 신념이 그대로 실천에 옮겨지는 공동체였다.

청교도에게 직업은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에머슨이 미국 사회의 윤리에서 공통적인 코인(coin)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자립성(Self-Reliance) 역시 “일을 해서 얻은 것만이 차지할 가치가 있다.”는 근로윤리에 토대를 두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근로윤리는 “도적질하지 말라.”(8계명),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10계명)는 성서의 십계명과도 연결되어 개인에게 정직을 요구하는 윤리기준으로도 작용하고 있다(송병락, 2001: 서문, 16-71)

미국인들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신념 역시 프로테스탄트 정신, 청교도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들은 교회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신앙인들(believers)의 자발적인 집합이라고 생각하며, 교회보다 개인 신앙인을 앞세운다. 따라서 반엘리트적이며, 모든 신앙인이 성직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강하다. 민주적 형태의 조직, 회중에 의한 자치를 중시한다(Bellah, et al., 1996: 244-245). 개인주의, 그리고 모든 사회 집단들은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주된 근원 역시 교회에서 유래한다. 이들은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옹호하였고, 자유를 침해하는 권위에는 어떤 것에도 저항하였다. 자신들이 스스로 세운 지역교회가 진실이라 믿었으며 교회나 국가의 권력을 거절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들은 개인의 인격이 양심의 근거라고 믿었으며, 교회 영역 내의 일들에 대하여 회중들이 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 회중들이 최종적 권위를 가지는 칼뱅주의 회중교회주의가 사회계약 개념과 피치자의 동의에 의한 정부개념의 뿌리가 되고 있다(해롤드버만·김철, 1992: 98-100).

### 3. 서부개척

서부개척이 미국 역사에서 갖는 의미는 단지 광대한 황무지를 개척하였다는 물질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인들은 서부개척 과정에서 자신들의 도전정신을 실험하였고, 자발적인 협력에 의한 질서 수립의 중요성을 학습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유산은 흠스적인 무질서가 자발적인 계약과 협력, 자치에 의하여 얼마든지 해소될 수 있음을 학습하였다는 점이다(Anderson&Hill, 1979). 사회구성원 간의 규약이 반드시 지켜

져야 한다는 점도 정부의 간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던 서부 개척지에서 다시 확인되었다.

Miller(1961)가 뉴잉글랜드 정신을 분석하여 미국이 소홀히 했던 정신적 요소를 밝혔다면, Turner(1920; 이형대, 2005 재인용)는 국민적 정체성을 구체적인 프론티어 경험에서 찾았다. 미국의 청교도주의가 영국의 퓨리터니즘과 다른 점은 새로운 사회건설이라는 목표를 가진 미국인들은 인간과 신과의 상호약속에 대한 믿음을 무엇보다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청교도들의 언약사상은 이들이 광야에서 새로운 사회질서를 세우고자 할 때도 그들의 정신구조로 작용하였으며, 하나님과 자신과의 약속을 믿고 프론티어를 개척해야 했던 경험을 통하여 개인의 자기 책임을 강조하는 개인주의가 실천되고 있었으며, 개인의 자기실현 개념을 중시하는 “자립적 인간”(self-reliance)<sup>18)</sup>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이형대, 2005).

뿐만 아니라, 토크빌이 일찍부터 지적하였던 미국 사회의 자치 관습, 즉 자발적 계약에 의한 공공적 문제의 해결 문화는 서부의 개척지에서도 그대로 꽃을 피웠다. 이 점은 Anderson&Hill(1979)의 연구에 잘 나타나 있다. 이들에 의하면 서부개척시대는 흔히 영화나 소설에서 그려지는 것과 같은 무질서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오늘날보다 오히려 더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와 조직을 자발적인 계약에 기초하여 수립하고 있었다. 국공유지에 이주하여 해당 토지를 이용하던 이주민들의 단체(Land Club 또는 Claims Association), 목장주들의 단체인 Cattlemen's Association, 광산캠프, 서부개척자단체(Wagon train) 등은 한결같이 자발적인 계약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정관을 제정하고, 당연히 정부를 통해서나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들까지도 스스로 공급하였다. 물론 이들 조직은 완전히 자율적으로 결정한 정관에 기초하여 운영되었고, 불확실한 이익을 찾아 모험을 떠나는 마차 벤처기업과 같은 비개인적인 계약관계(impersonal contract)에 있었으며, 또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조직체였다는 점에서 계약의 결집체인 현대의 기업조직과 동일한 조직원리를 가지고 있다.<sup>19)</sup>

18) 랄프 왈도 에머슨(Ralph W. Emerson) 지음, 이창기 편역, 『자신감』, 하늘아래 2006 참고.

19) 이러한 서부의 공동체 조직방식에 대하여 저자들은 첫째, 시장의 질서유지장치에 의존하였으나 질서가 이루어졌으며, 둘째, 정의에 대한 여러 기준과 규칙에 대한 여러 선호가 시장을 통하여 표현되었고, 셋째, 권리의 보호와 판결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기구들을 얼마든지 작동할 수 있음을 실증하고 있으며, 넷째, 경쟁이 법과 질서에 대한 공공재문제의 해결에 매우 효과적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그런데 이런 사회조직에서는 어디에서나 대리인을 통하여 조직관리나 규칙을 집행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Land Club의 조직관리자, 재판관, 보안관, 광산캠프의 감독위원회, 판사, 배심원, Wagon Train의 범집행자(captain, assistant captain, secretary 등), 공무담당자 등은 분명 이들 조직들이 조직 업무의 집행이나 결정을 위임하기 위하여 임명한 대리인들이며, 게다가 이런 대리인에 의한 업무방식이 효율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Anderson&Hill, 1979: 15-18). 또한 미국인들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학교를 설립하여 학교의 경영은 운영위원과 학교장에게 맡겼고, 스스로 주민자치단체를 설립하고 단체장·보안관·소방관 등을 임명하여 공공사무의 수행을 위탁하였으며, 또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성직자를 초빙하여 교회를 운영해 온 전통을 가지고 있다(Bellah, et al., 1996: 116). 이런 미국 사회의 전통 속에서 ‘대리인(agent)’ 방식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임을 이미 학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따라서 전문경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 문제의 불확실성이나 위협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이 법의 나라(안경환, 2001: 210)가 되는 데 있어서도 자발적 계약에 의한 규약의 문화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부의 개척지에서 법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지키기로 합의한 사회규약이었고, 따라서 그 규약을 지키는 것은 사회구성원의 기본 상식이자 공중도덕이 된다. 정부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발적인 규약마저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완전히 흡수적인 혼란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서부개척자들로 하여금 그토록 꼼꼼하고 치밀하게 규약을 체결하고 이의 준수에 힘쓰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 4. 자율적인 기업조직화의 전통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단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만 만들어지면 기업은 어디서나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가? 베버의 지적(1968; 1988: 9, 12, 37)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부를 축적하려는 욕구, 가능한 한 많은 양의 화폐와 이윤을 추구하려는 노력은 언제

---

있다(Anderson&Hill, 1979: 26).

어디에서나 있었다. 중국, 인도, 바빌론, 그리고 고대와 중세에도 있었다. 그러나 근대 서양에서와 같이 자신의 지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관리(경영자)들이<sup>20)</sup> 계약에 의하여 직책을 맡음으로써 조직되며(Weber, 1968), 경영자를 포함한 자유로운 근로자들의 합리적인 조직체로서 형성되는 기업조직은 서구 자본주의에서만 독특한 것이다(Weber, 1988: 12).<sup>21)</sup> 그런데 베버가 말하는 서구 기업조직의 조직형태, 즉 관리자를 통하여 조직과 기업을 관리하는 조직방식은 이미 대리인관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경영을 특징으로 하는 미국이나 현대적 대기업 조직과 동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서구에서 상업의 역사를 보면 대리인관계를 포함한 상업조직의 발전은 그 뿌리가 매우 깊다. 예를 들면, 로마시대 때 이미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만들었던 기업 성격의 조합(societates)이 등장하며, 이 조직은 3세기경에는 각자가 자기 몫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주식회사 성격의 조합으로 발전하고 있다. 로마인들은 분명 회사법의 기본 골격을 수립하였고, 인간이 모여 만든 집합체의 성격은 구성원 각자와 완전히 다른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특히, 참여자 또는 조합원들이 관리 책임을 전적으로 전문관리인에게 위임하기도 하였다(Micklethwait&Wooldridge, 2004: 30-31).

자연인과 조직체를 법적으로 분리함으로써 대리인 문제를 필수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는 법인이라는 조직형태 역시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세 초기 교회법과 로마법을 연구하던 법률가들은 이때 이미 법인(corporate person)이라는 의인(擬人) 현실화에 눈뜨기 시작했다. 법인(예: 대학, 도시, 종교집단, 상인·무역업자조합 등)은 결속력이 약한 개인이 만들어 낸 집합체이지만 이를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 존립시킴으로써 재산의 상속을 포함해서 사업의 연속성을 다음 세대에까지 지속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강구된 것이다. 예를 들면 아직도 런던금융가의 4분의 1, 세 개의 사립학교, 네 개의 시장, 런던서북구의 유원지 햄스테드 히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런던시의 33개 자치구 중의 하나인 런던법인(the Corporation of London)은 그 기원이 1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Micklethwait&Wooldridge, 2004: 39-40).<sup>22)</sup> 만일 이런 법인에서 대리인 문제가 심각하게 발

20) 자신의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에치오니&할레비, 1999: 48-49).

21) 우리에게도 기업은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에 대하여 Fukuyama(1995)가 지적하였듯이 모든 자원에 대한 비개인적 거래가 가능한 신뢰에 토대한 경영방식은 아니다. 여전히 기업의 대주주들은 자녀에게 경영권까지 함께 승계하고 있다.

22) 런던의 33개 자치구 중의 하나인 the City of London은 런던법인에 의하여 관리된다. 런던법인은 잉글

생하였다면, 즉 선출된 시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자치가 지속될 수 있었을까? 시정에 대한 내부와 외부의 감시와 감독기능이 강화되면서 자치적인 지배구조는 점점 퇴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발전되고 있던 자율적 조직화의 전통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고 대규모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면서도 동시에 대리인 위험도 클 수밖에 없었던 16-17 세기의 수탁회사(Chartered Company)<sup>23)</sup>의 발전에 토대를 제공하였다. 수탁회사들은 이미 1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수 있는 관행에 따라 주식을 거래하고 있었으며, 투자자의 책임을 유한책임으로 제한함으로써 거의 현대적인 조직형태를 갖추었다. 그런데 사업의 위험이 컸던 만큼 이를 무리 없이 소화해 내기 위하여 관리체계는 더욱 정교화되었다. 예를 들면, 동인도회사는 규정을 마련하고, 자금 모집과 상거래 내역을 철저히 감독하는 시스템에서 다른 유사기업보다 훨씬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의결권을 가진 주주들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와 총회가 선출한 24명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중적 감독체제를 이미 갖추고 있었다. 또한 종업원의 부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주주의 자식들을 선발하여 관리업무를 맡겼으며,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후하게 주어 애사심을 강화하고, 매일 빠짐없이 교회에 나가 근면성을 키우고 술, 도박, 방탕한 생활을 철저히 금지하기까지 하였다(Micklethwait&Wooldridge, 2004: 43-50).

지배구조를 놓고 보면, 동인도회사는 전문경영인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공무원을 공복이라고 부르기 훨씬 이전에 동인도회사의 관리인들은 총칭하여 공복이라고 불렸으며, 이 회사의 규율은 “모든 것을 보고하고, 모든 것을 기록”하는 정부와 동일하였다. 아담 스미스가 동인도회사 등 수탁회사에 비판적 견지를

---

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기구로서 중세시기에 프랑스의 모델에 기초하여 만들어졌으며, 시장이 최고 의사결정자이다. 이 법인은 의회보다 더 일찍 의회구조를 채택하였다. 시장과 24명의 행정장관(Aldermen)과 112명의 의원에 의하여 통치된다. 이들은 모두 독립적으로 그리고 자원하여 봉사한다. 특히 행정장관들은 중세 길드의 자손들인 Livery Companies에 의하여 아직도 선출되고 있으며, 또한 행정장관회의(The Court of Aldermen)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시정에 대하여 상당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해 왔다(홈페이지 참고).

23) 특정한 식민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에 대하여 왕으로부터 독점적 면허(charter)를 받음으로써 만들어졌던 회사. 예를 들면, ‘동인도’, ‘모스코비’, ‘호드슨 베이’, ‘아프리카’, ‘버지니아’, ‘메사추세츠’ 등이 대표적인 수탁회사들이었음.

제시한 이유는 주식회사가 전문관리인들에 의하여 관리되기 때문에 주주 본인만큼 열성적일 수는 없으며, 결과적으로 개인사업가에 비하여 태생적으로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 수탁회사들은 지구 반대편과 무역을 해야 한다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보여 주었으며, 수탁회사가 개인기업보다 시장에 훨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Micklethwait&Wooldridge, 2004: 63-64).

몽테스키외가 지적하였듯이(법의 정신, XX권 7장) 영국인들은 신앙·상업·자유 세 가지 사항에서 다른 민족을 능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영국의 프로테스탄트와 미국의 프로테스탄트가 다르고 영국의 민주주의와 미국의 민주주의가 다르듯 이러한 영국의 정신과 제도들이 동일하게 미국에 전수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화평론가 피들러(Leslie A. Fiedler)의 말대로 미국은 나라의 건국 이유부터가 상업주의적이며(김성근, 2003: 4), 이런 상거래 관계에서는 영국식의 법치와 정의의 전통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Huntington, 2006: 62; Ferguson, 1984: 711; 황혜성, 1990: 1). 뉴잉글랜드 지역이나 서부개척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치의 전통의 근원을 그 모태라 할 수 있는 영국적인 경험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영국의 신앙·상업·자유 전통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5. 그 외: 정부권한의 제한, 봉건제 경험의 부재 등

미국 사회가 청교도 정신과 서부개척정신, 자율적 기업조직화의 전통 등의 전통적인 요인으로부터 자발적인 협력과 계약의 전통을 발전시키는 데는 제한된 정부권한, 봉건제 경험의 부재, 풍부한 자연 환경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우선 정부가 강력한 곳에서는 자발적인 협력의 전통이 성장하기 어렵다(예: Hayek, 1996; North, Summerhill, and Weingast, 2000: 25). 재산권을 강하게 보호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정부는 시민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데도 역시 강력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을 받아 공정한 경제제도를 수립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소위 “경제의 정치적 딜레마, fundamental political dilemma of economy,” Weingast, 1995). 계약의 집행을 위하여 감독자에게 의존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감독자는 누가 감독할 것인가 하는 딜레마에 다시 빠지게 된다(Greif, 2004: 3).

미국이 봉건제의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미국 사회가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사회질서를 수립하는 데 기여하였다(Hartz, 1955; 5-6; 황혜성, 1990: 3 재인용). 미국 사회는 봉건주의 유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의 폐지를 위하여 혁명이 필요하지 않았고, 계급의식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중시하는 자유주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으며, 사회주의 도전에도 무관심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에서의 합리주의의 상징인 로크주의가 미국에서는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미국적인 생활방식(the American Way of Life)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점이 기여하였다.

무한히 펼쳐져 있는 주인을 기다리는 광대한 들판이 개척자들에게 자신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도 구성원 간의 갈등과 대립의 필요성을 약화시켰다(Tocquville, 1997: 369-380). 무한히 펼쳐져 있는 대지가 열심히 일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욕구와 인간의 모든 감정을 정당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었다. 따라서 아무리 자유로워도 탈이 될 것이 없었고, 언제나 질서와 번영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유를 악용할 동기도 억제되었다(Tocquville, 1997: 378). 생산수단과 기회의 부족이라는 전통적인 갈등의 근원은 거의 사라진 반면, 새로운 기회와 꿈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서로가 협력해야 할 필요성은 높아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거래·협력 관계에서는 정직성을 요구하는 문화와 관습이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 IV. 비공식제도의 동형적 확장으로서의 전문경영

### 1. 공식제도에 관한 재평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처벌이 명시적으로 가하여지지도 않는 비공식제도를 통하여 어떻게 개인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이 차단되고 자발적인 협력행동이 일반화되고 지속될 수 있는가? 전문경영을 핵심으로 하는 미국의 지배구조는 미국 전통과 역사적 경험의 산물인 비공식제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전문경영인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주어지고, 감독 장치들은 결합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문경영인들의 부정회계 빈도는 극히 낮다는 객관적인 현실<sup>24)</sup>과 미국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신념이나 행동규범

과는 어떤 관계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공식제도들이 상당한 약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경영자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드문 현상에 대하여 미국 사회의 역사적 경험과 그 소산인 비공식적 제도들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배구조 연구와 관련하여 우리가 가장 혼동하고 있는 부분이 공식제도 특히 법의 성격에 관한 것이므로 법과 비공식제도의 관련성에 관하여 먼저 검토해 보자. 가장 먼저 지적되어야 할 부분은 미국 사회에서 법의 성격이다. 기독교적 신앙 공동체로 출발한 미국의 역사에서 기독교적 신념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없으며, 공식제도의 변화에 미친 영향도 매우 극적이다. 역사적인 변혁의 토대와 원동력이 한결같이 기독교적 신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독립혁명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하고,<sup>25)</sup> 헌법의 수립과 안정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였으며(North, Summerhill, and Weingast, 2000), 정부권한의 확대를 견제하고, 노예의 해방을 가능하게 하고, 시민권리의 신장(Civil Rights Act)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이들이 가진 기독교적 신념이었다(Bellah, *et al.*, 1996: 212-213).<sup>26)</sup> 모든 개인은 하나님에 의하여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따라서 동등한 자유를 향유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믿음이 이와 충돌하는 정치·경제 제도와 압

24) 1987년에서 1997년까지 11년간의 회계부정을 조사하였던 연구는 11년간 단지 300여 개의 기업이 회계부정에 연루되었는데, 대부분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회사(78%, 총 자산 1억 달러 이하)에서 회계부정이 발생하였으며, 주로 수입 감소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1999). 옥슬리법의 요구에 따라 최근 5년간(1997. 7. 31~2002. 7. 30)의 부정회계의 실태를 조사한 SEC의 보고서에 따르면 회계보고 및 정보공개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 227건이었으며, 이에 따라 515건(연평균 103건)의 시행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 중 가장 많은 위반 내용은 부적절한 수입계상(126건), 부적절한 비용처리(101건)이다(SEC, 2002). 이런 이유로 회계부정을 조사한 위의 보고서들은 회계부정이 흔치 않으며 예외적인 일(exceptional, NCFRR, 1987: 23)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Economist, 2003: 11).

25) 예를 들어, 1776년 상식 「Common Sense」을 발표하여 여론을 선도, 독립혁명에 불을 지폈던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의 주장에 의하면 왕정은 그 기원부터가 신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었고, 이교도의 관습이었으며, 백성을 도탄에 빠뜨릴 정제였다. 그는 이 점을 성서(예: 사사기 8:23; 사무엘상 9:11~18)를 통하여 논증함으로써 미국인들의 종교적 심성에서부터 독립에 대한 정당성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26) 미국 역사에서 종교의 역할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이 사회운동들이다(Bellah, *et al.*, 1996: 248-249). 예를 들면, 노예해방에 대하여 가장 열렬한 지지를 보낸 것이 성직자들과 신도들이었다. 또 19세기만 초기 자본주의가 최악의 극단에 이르렀을 때 이를 중화시켰던 사회복음운동(Social Gospel movement)에 앞장선 것이 교회였다. 교회의 개입이 없었다면, 많은 중요한 문제들이 무시되거나 필요한 변화가 훨씬 늦어졌을 것이다. 마틴 루터 킹이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시민권리운동(Civil Rights Movement) 역시 압도적으로 종교적인 시민운동이었다. 이들은 성서적인 주제와 공화주의적인 주제를 융합시킴으로써 구성원들의 상호의존성과 차이를 동시에 존중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목표로 하였다.

력에 저항하는 거대한 사회적 변혁의 동기와 힘의 원천이 되었다. 따라서 기독교적인 토대를 이해하지 않고는 미국 사회에서의 법의 성격을 결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정책과정은 보통의 경우 이해관계에 의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되었을 때 갈등해결의 방향을 제시하였던 것은 미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던 신념, 즉 기독교적 전통에 뿌리를 둔 자유와 평등의 신념이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자. North가 서구사회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열쇠로 강조하고 있는 재산권제도 역시 단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겠는가? North는 공식제도란 넓게 말하면 재산권제도라고 말하고 있으며(North, 2006: 57), Berle&Means(1932)가 전문경영이라는 지배구조를 우려하였던 것도 전문경영이 주주들의 재산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North의 주장이 재산권을 법으로 정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준수되도록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단지, 공식제도의 주된 내용이 재산권의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뜻할 뿐이다. 실제로 재산권제도가 사회의 기본질서로서 살아 있게 하는 것은 단지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결코 아니다(해롤드버만·김철, 1992; 송병락, 2001; Hayek, 1996). 프로테스탄트의 개인 개념이 전제되어야만 개인의 권리는 개인의 양심에 모순되거나 반대되지 않는 한은 신성하고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신념이 구성원들 간에 뿌리내릴 수 있다(해롤드버만·김철, 1992: 98-99). 도둑질이란 신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생각이 확대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인의 기회주의적 동기에 의하여 사유재산권제도는 침해되기 쉽다(송병락, 2001).

근대 영미법의 골격을 이루어 온 판례법도 마찬가지다. 판사의 판결이 판례법의 전부 아니다. 미국법의 역사를 연구한 Friedman(1988: 10)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이론상 코먼로란 통상적인 의미에서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라 단지 판사가 ‘발견’한 법일 뿐이다. 판사는 법을 창조하지도, 발견한 상태를 변경시키지도 않았다. 판사의 역할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사회의 통념이나 관행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고 무엇이 다수의 구성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이고 권리인지를 판단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만일 법원이 다수의 생각과 괴리되는 판결을 자주 내리게 된다면 법원이 스스로 자신의 공신력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법은 인간이 창조한 수단이나 도구라는 현대적인 법사상은 전통적인 코먼로체제에서는

낮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미국 법원의 판례법 역시 이미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된 인식, 재산권에 대한 관행과 거래 관습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미국의 법원이 150년 이상 판례로 지켜져 온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 역시 이를 단지 판례로 보아서는 안 된다. 법원은 도대체 기업조직에 관하여 무엇을 발견하였기에 경영인을 사후적인 책임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이러한 판례를 지속하고 있는 것일까? 우선 이런 판례가 수립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은 당시 미국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한 시대였으며 따라서 전문경영의 성과가 나쁘지 않았고, 회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소극적인 안전책만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경영수완을 발휘하는 것이 당연하였다. 주주들이 이사를 신뢰하여 경영을 위탁하였는데 법원이 사후적으로 경영판단이 타당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을 사회의 상위에 두는 것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들이 작용하였다(홍복기, 1986: 236-237). 간단히 말하면, 이 원칙은 이사들이 어떤 것에 의하여도 좌우되지 않고 성실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행사할 것이라는 기대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에 대한 이러한 신뢰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직업을 신이 준 소명처럼 여기고, 일을 해서 얻은 것만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도적질은 법을 어기는 일일 뿐 아니라 신의 계명을 어기는 최악이라는 신념을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다면 이는 전문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튼튼한 사회자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미 여러 가지 상업 및 사회 조직들을 통하여 대리인 관계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졌고, 계약을 지키는 것이 관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라면 전문경영은 이러한 역사적 경험의 연장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지배구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미국의 회사법 역시 미국 역사와 문화의 산물이다. 마치 이 법이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행동을 규율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문화와 전통이다. 한국의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법실증주의적인 수단으로서의 법과는 거리가 멀다. 미국 각 주의 회사법은 소위 ‘정관장사’(chater mongering)<sup>27)</sup>

27) 19세기 말엽 이후 미국의 각 주들은 기업 인가에 따른 조세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기업을 각자 자신들의 주로 유치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기업의 요구를 가장 잘 반영한 회사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주들이 벌인 경쟁을 비꼬아 쓰는 표현이다. 델라웨어 주가 회사법의 표준처럼 된 것

의 과정에서 기업을 자신들의 주로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회사법이 경영진의 구미에 맞추어 가는 밑바닥을 향한 경쟁(race-to-the-bottom)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Black, 1990). 이런 이유로 미국의 회사법은 내용은 없이 외형만 남아 있는 빈 조개껍질(empty shell)과 같은 것이며(Black, 1990: 542), 결과적으로 회사법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각 당사자들이 참고할 만한 모델이나 표준양식을 제공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고 있다(Easterbrook&Fisher, 1998: 70-71).

중요한 것은 법이 아니라 관습과 문화다. 각 주의 입법부가 회사법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특별정관입법<sup>28)</sup>을 제정하기 이전에 이미 현대적 회사조직과 흡사한 각종 형태의 영리조직들이 자율적으로 결성되고 확산되어 있었고(Friedman, 1988: 231), 게다가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여 다양한 형태의 회사들이 이미 설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일적인 계약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고(Black, 1990: 554), 또한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에 대한 신념이 이미 영국 식민지시대부터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을 규제한다는 것이 미국인들의 신념과 합치되지도 않았다(North, Summerhill, and Weingast, 2000: 17). 각 주 회사법의 기본구조는 당시 이미 일반화되어 있던 사업관행의 공식화였을 뿐이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존속되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공식제도는 단지 지배집단이나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한 신념, 또는 이미 관례화되고 관습화되어 있는 사회현상의 공식화일 뿐이며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은 사회구성원들이 가진 신념, 사회구성원들이 마음속에 내재화하고 있는 행동규칙이라는 것이다. 물론 공식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법인의 법적 실체성이나 주주들의 유한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기업조직의 발전에 중요한 초석이 된다.<sup>29)</sup> 반면 경제력의 집중에 대한 국민들의 우

도 델라웨어 주가 기업들에게 유리한 회사법을 제정하여 실제로 가장 많은 회사들을 유치하였기 때문이다(Black, 1990: 545-550).

28) 회사법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기업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특별법의 형태로 제정하여 회사의 설립을 허가하였다.

29) 이런 법적인 현상 역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사회적인 관습이나 당시의 여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거래규범의 준수에 대한 구성원 간의 신뢰가 토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인의 법적 실체성을 인정하더라도 법인이 특정인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예: 한국의 대기업), 전문경영인들이 기회주의적 행동을 일삼는 상황이었다면 유한책임제도 역시 이에 대한 안정적인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려가 기업에 대한 투자은행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정부 개입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지배구조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한 사례도 있다(Roe, 1994).<sup>30)</sup> 다만, 이 연구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공식제도의 조건이 갖추어진다고 해서 어디서나 서구에서와 같은 전문경영의 대기업이 발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Fukuyama, 1995). 왜냐하면, 전문경영이라는 새로운 문을 법적으로 열어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길을 갈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에 기초하여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지금까지의 시행착오 속에서 학습하고 터득한 해법들, 그리고 이러한 해법들이 축적되어 형성된 공식·비공식의 제도들이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 2. 습관화와 비공식제도화

미국의 전문경영을 특징으로 하는 지배구조가 공식법령이 아니라 비공식제도와 관습들에 의한 자생적인 질서일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 지배구조가 법에 의하여 설계된 것이 아니라 관습의 결과물일 가능성을 가장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사람은 하이에크다(Hayek, 1982; 1996). 하이에크는 도덕, 법을 포함한 사회제도들이 모두 어떤 디자인의 결과물이 아니라 진화의 과정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질서임을 주장하고 있다(예: 1982: 3-5; 1996: 37; 43; 53 등).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처한 여건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경쟁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이런 질서가 자생적으로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기 쉬운 인간들이 어떻게 전문경영과 같은 정직한 협력적 질서를 수립할 수 있는가?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은 특정한 여건, 즉 청교도 정신, 서부개척, 자율적 조직화의 전통, 미국 사회의 역사·사회 환경적 여건 등이 어우러져 이러한 행동규범을 너무나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으로 내면화·습관화하고 이것이 비공식제도화하였으며, 이러한 비공식제도를 기업지배구조에 확장하여 적용함으로써 비공식제도가 전통적인 관행과 동형적인 구조를 가진 전문경영으로 진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30) 국민들이 경제력 집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우려의 정도 자체가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다수의 국민들이 다 같이 이를 우려하였기 때문에 중요하였고(Roe, 1994: 27), 일단 규제들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소규모은행과 같이 투자은행과 경쟁관계에 있던 이익집단들이 투자은행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법의 존속과 안정화를 뒷받침하였다.

### (1) 형성: 습관화, 제도화

우선 인간에게 습관이 형성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자. 즉 인간이 어떤 행동을 왜 반복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왜 정직한 행동을 반복하며 반대로 왜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인간이 어떤 행동을 반복할 것인지는 그가 처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태어난다. 그러면 자신이 태어난 가정과 사회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만 자신의 생존에 유리하겠는가?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표현하기 위하여 행동과 언어를 사용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표출된 행동이나 언어에서 어떤 것들이 지속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되겠는가? 그것은 결국 사회가 결정한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표현이나 행동 중에서 사회생활에 유용하고 가치 있는 것, 즉 다른 사회구성원들과의 일상생활 속에서 유용성이 인정되는 언어와 행동들만이 하나의 지식으로 축적하고 반복하고 전수할 가치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적 능력이 부족한 인간으로서는 습관이 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인간의 활동이 최소한의 선택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습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이근, 2002: 179). 어린이가 언어를 습득하고 행동을 학습하는 것은 그것이 부모들에게 칭찬을 받고 부모를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타당하고 유용한 지식과 행동, 그리고 습관은 일상의 사회생활 속에서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인간의 지식은 물론 행동과 습관까지도 적어도 사회관계에 관한 한은 사회성을 떨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Berger&Luckmann, 1966: 34-46). 인간의 지식이나 심지어는 인간의 의식(consciousness), 관념의 내면까지도 사회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social being)이고(Berger&Luckmann, 1966: 4-7), 해당 사회의 문화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인간의 내면세계와 행동이 사회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의 의미는 Kahneman&Tversky의 행동경제학(도모노노리오, 2007)이나 Kahan&Braman, Hutchins, Wildavsky 등의 문화인지이론에 비추어 보면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Kahneman &Tversky에 따르면 인간의 지각과 행동은 합리성이나 객관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며, 인간은 정보의 지각·해석과정(휴리스틱)에서 자신이 이용 가능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어떤 현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대표적인 속성만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자신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하나의 기준점으로 판단한다(도모노노리오, 2007: 70-85,

소위 availability heuristic, representative heuristic, anchoring and adjustment 등). Wildavsky(1987)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지적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이해하고 선호를 선택하는 데 있어 자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동료들이나 집단의 생각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더구나 휴리스틱의 주요 단서와 틀 자체가 사회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인지의 과정과 결과가 사회적 편향을 재생산하기 쉽다(Kahan&Braman, 2006: 163-164). 사회에 의하여 문화가 휴리스틱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신념과 상충되는 경험적 증거를 수용하는 데는 소극적인 반면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과 일치하는 새로운 정보만을 수용하는 경향을 갖는다(소위 편향된 동화, biased assimilation).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은 자기 집단의 신념은 객관적 평가의 산물로 생각하는 반면 이념적 상대의 세계관은 편향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소박한 실재론, naive realism). 이런 상황에서는 설사 진실한 증거라도 집단 간에 교류되기 어렵다. 상대방에 의하여 제시된 정보의 설득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반응적 평가절하(reactive devaluation) 경향 역시 진실의 흐름을 방해한다.

개인의 습관적 행동이 사회구성원들에게 공통적인 습관으로 확산되어 하나의 비공식 제도가 되는 과정 역시 사회적인 과정이다(Berger&Luckmann, 1966: 53-62). 습관의 형성에 서와 같은 동일한 인지적 편향성이 그대로 작용하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 습관의 (비공식)제도화는 사회구성원들의 습관적인 행동들이 상호적으로 전형화될(reciprocal typification) 때 이루어진다.<sup>31)</sup> 이렇게 상호적으로 전형화된 습관은 인간의 행동양식을 미리 고정시킴으로써 인간의 행동에 대하여 사회적인 통제를 가한다. 또한 이러한 전형화된 행동들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사회생활 가운데 일상화되면 습관적인 행동은 거의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사람의 심리에 내면화될 것이다. 인간의 행동에서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차지하는 부분은 적으며(North, 2006: 74; Kasper&Streit, 2000: 139), 어떤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신념은 무의식적으로 수용된 것이라는 생각(예: Bellah, 1996: iii)은 바로 이러한 관습의 내면화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사회질서가 단지 도덕적 전통을 따르는 과정에서 아무런 의식 없이 발생할 수 있는 것(Hayek, 1996: 125)도

31) 상호적 전형화의 의미에 대하여 저자들은 정확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특정 개인의 습관적인 행동이 다수 개인 간의 상호 공통적인 습관으로 확대됨으로써 사회공통적인 습관으로 수용될 때 습관이 사회제도가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 과정 때문일 것이다. 인간행동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라 할 수 있는 의식이나 선호까지도 여전히 역사와 사회적 조건의 산물이 되며(Berger&Luckmann, 1966: 16), 무의식적으로 따르는 사회규범과 예절이 우리의 정신구조를 형성하고 결과적으로는 제도변화의 경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민경국, 2002: 77)도 이런 관습의 무의식화와 제도화의 결과일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인간의 습관이나 비공식제도는 결국 사회적으로 선택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 사회의 개척기와 건국 시기, 즉 미국 사회의 지배적인 관습과 비공식제도가 형성되던 시기의 사회적 여건에서는 어떤 행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정당화되면서 습관화될 수 있었겠는가? 가장 지배적인 요인은 역시 종교, 즉 기독교와 청교도 정신이었으며, 청교도 정신의 핵심은 자본주의와 전문경영이 요구하는 도덕규범 그 자체였다. 당시의 청교도 정신은 단지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이들의 세계관이었고, 마음의 상태였으며(state of mind; 김성곤, 1999: 305), 내면 세계였고, 도덕과 삶의 양식이었고, 행위 규범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최정웅, 1993: 2; 정용석, 2002: 186; 이장식, 1978). 언어, 공동체 생활, 직업, 집단적 의사결정 등이 모두 정직·성실·사랑·봉사·책임 등을 핵심으로 하는 종교적 신념의 표현이었다. 종교가 개인을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게 만드는 일종의 사슬이었으며, 사회를 도덕적으로 통합하고 질서를 유지시키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였다(Bellah, et al., 1996; 송재룡, 2005). 청교도 정신이 개척시기와 건국시기 미국인들의 마음의 상태(state of mind), 정신을 형성하는 인지의 틀이었으며, 인지 휴리스틱의 구성요소였다는 것이다.

우선 이들이 형성하였던 자치공동체 자체가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얼마든지 정직하게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공간이었다. 당시의 자치공동체는 구성원 간의 상호결합 및 자기통치형 네트워크였으며(Bellah, et al., 1996: 39-40; 이장식, 1978), 참여를 통하여 공동체와 사회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학습하는 공간이었다(Bellah, et al., 1996: 38). 각 개인은 공동체라는 유기체의 지체를 이루어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Bellah, et al., 1996: xxxiv, 29). 공동체의 법과 의사결정에서는 참여와 평등선거가 기본적인 규칙이었으며(이장식, 1978: 139-143),<sup>32)</sup> 공동체의 규칙(법)

32) 뉴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은 교회의 제도와 국가의 제도가 동일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실제로 뉴잉글랜드는 교회의 계약에 의해 질서가 성립되었다. 교회계약의 결정과정에 시민들을 참여시킴

은 교회의 총회에서 결정되었으며, 당연히 십계명처럼 신성한 동시에 도덕추구의 수단이었다(송병락, 2001; 김성근, 1999: 306).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는 계명의 실천이었으며 현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이었다(차성화, 1997: 88), 직업 역시 단지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신을 기쁘게 하는 소명이었다(Weber, 1988: 39, 60, 177).

행동의 규범들 역시 정직과 정의, 사랑과 봉사를 습관화하고 비공식제도화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다.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성공을 위하여 기회에 도전할 수 있는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었다(Bellah, et al., 1996: xxxiv, 33-35). 그러나 탐욕적이고 충동적이며 비합리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절제를 요구하였으며(Weber, 1988: 8), 경쟁 시장에서의 평화적 교환·이윤추구(Weber, 1988: 9)와 직업에 의한 정당한 이윤추구(Weber, 1988: 48)만을 정당한 이익으로 간주하였다. 의사결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헤롤드버만·김철, 1992: 87-88, 이사야 5:23-24; 아모스 2:6-7), 기업가들에게는 오로지 완벽한 직무완수(Weber, 1988: 53)와 도덕적 자기규율(moral self-discipline, Bellah, et al., 1996: x)을 요구하였다. 모든 구성원들은 특정한 직책을 맡은 자들까지 포함하여 본질적으로 평등하다고 생각되었으며(이장식, 1978: 139), 시민의식(김선욱, 2003: 293, 종교를 통한 사회봉사와 국가에 대한 충성의 표출), 연대의식과 소속감(차성화, 1997: 35), 심지어는 과학조차도 개신교의 바탕 위에서 발전하던 시기였다(Weber, 1919; 차성화, 1997: 30 재인용). 베버가 자본주의의 발생과정을 규명하기 위하여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당시 사회의 의미세계를 대표하던 것이 종교였으며, 사람들의 세계관·내면세계·동기체제가 종교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고(차성화, 1997: 13-19), 자본주의적 경제행위를 이끌어 가는 원리를 형성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종교, 즉 신앙에 근거한 윤리의식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차성화, 1997: 60).<sup>33)</sup>

당시의 사회상으로 돌아가 보면, 사회적으로 가장 잘 통할 수 있는 언어와 행동, 가장 빈번하게 접할 수밖에 없는 언어와 행동, 가장 대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특징들과 같은 휴리스틱의 결정요소들이 한결같이 정직과 성실을 가장 기본적인 규범을 내포하고

으로써 민주적 질서를 수립하였으며, 교회행정의 이론과 국가행정의 이론이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이장식, 1978: 142-143).

33) 베버는 또한 자본주의가 경제적 선택과 도태의 방법을 통하여 그 자체가 필요로 하는 경제주체들(기업주, 근로자들)을 스스로 양육하고 있다고 보았으며(1978: 37). 종교적 행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자본주의 정신이 출현하였다고 생각하였다(차성화, 1997: 74).

있었으며, 또한 이런 인식과 합치되는 행동과 규범을 정당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습관화하고 비공식제도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 (2) 전수·지속·진화

17세기의 청교도 정신에 뿌리를 두고 형성된 정직·성실·책임감 등의 윤리가 어떻게 전문경영이 출현하던 19세기 후반은 물론 현재까지도 지속하면서 전문경영인을 포함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제약하는 비공식 제도로 작용할 수 있는가? 첫째, 도덕규범의 근원이 되었던 기독교의 영향력이 상당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다(Huntington, 2006; Bellah, *et al.*, 1996 등). 교회는 과거만큼 외부 권위에 대한 순종과 존경을 요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종교는 도덕적 질서와의 관계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개인들이 자기 존경을 유지하고 도덕적 헌신을 준비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미국 문화 속에 청교도주의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미국인들의 정신과 의식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김성곤, 1999: 331), 미국인들은 여전히 성공·자유·정의(동등한 기회, 공정한 법)를 추구하고 있다(Bellah *et al.*, 1996: 22-26). 심지어는 오늘날까지도 미국의 역사는 성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Bellah *et al.*, 1996: 28; Huntington, 2006).

둘째, 기독교적 윤리의 소유자들이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이런 윤리가 확산되고 검증되었다(Weber, 1988: 48). 비록 처음에는 종교적인 이유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경제윤리는 자본주의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비공식제도의 핵심이다(차성화, 1997: 74; North&Thomas, 1973; North, 1990; 2006). 설사 종교적인 신념이 약화되더라도 경제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던 도덕규범은 하나의 비공식제도로써 이미 검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되고 전수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습관화된 행동규범과 비공식제도들을 전수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들이 개인의 일상생활 전반에 확산되어 있다. 근면과 성실을 무의식적으로 전수하는 수많은 언어와 격언에서부터(Bellah, *et al.*, 1996: 144-147), 여전히 정직과 성실함을 칭찬하고 교육하며, 독립과 자립을 실천적으로 가르치는 미국의 가족 문화(Bellah, *et al.*, 1996: 57-65), 각종 단체에의 참여를 통하여 학습하는 책임의식과 공동체 의식, 각종의 법과 대학, 학교, 교회,

사회단체 등의 조직 방식에 스며있는 평등·개인주의,<sup>34)</sup> 소설과 영화와 같은 문학작품이나 대중문화 매체(안경환, 2001; Ferguson, 1984; 김성곤, 2003),<sup>35)</sup> 심지어는 스포츠까지 미국인들이 창조하고 조직한 것은 모두 자신들이 중시하는 가치와 이념을 전수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청교도 정신을 모태로 하여 형성된 정직과 성실을 핵심으로 하는 미국인들의 마음의 습관은 대기업에서의 전문경영이라는 지배구조의 성립에도 여전히 핵심적인 토대가 된다. 정직이란 전문경영이 초래할 수 있는 기회주의적 행동에 따른 거래비용을 거의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이 비친족에 대한 불신으로 전문경영을 거부하지 않았고, 사회적 신뢰가 폭넓은 수준으로 확산되어 미국에서 대기업과 전문경영이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Fukuyama, 1995; 349-365).

이처럼 청교도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직과 신뢰라는 비공식제도에 기초하여 전문경영이라는 새로운 조직방식이 출현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획득된 전통이 가지는 적응력에 의하여 설명할 수도 있다(Hayek, 1996: 151, 157; Berger&Luckmann, 1966: 86). 어떤 행위 규칙이 이미 수립되어 있을 때 개인이 추구할 수 있는 선택의 영역은 더욱 확장된다. 이미 획득된 행위 규칙이 새로운 규칙을 채택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즉 상호적인 전형화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행동규범의 습관화, 내면화의 정도가 높아

34) 정직·자유·평등 등의 미국인들의 가치는 개인의 행동은 물론 조직의 결성·운영 방식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정부나 정당, 기업과 같은 조직을 결성하고 운영하는 방식 역시 공정한 경쟁과 법에 기초한 대등한 계약과 협력을 중시하는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평등을 중시하면서 기회주의적 행동을 자제하고 법을 준수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존스, 2000). 기업에서의 상급자는 단지 더 책임도가 크고 복잡한 일을 처리할 뿐이며(김동욱, 2004), 업무 외의 개인 인격적인 차원에서는 거의 평등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모두가 생각하고 또한 행동한다(Welch, 2001).

35) 이들에 따르면, 미국 영화들이 다루고 있는 주요한 주제들은 여전히 법·자유·정의·인종·가족·영웅과 같은 미국인들의 가치이며, 미국의 문학작품들 역시 공화주의·공동체·자유·평등·형제애 등이 주된 주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건국 초기의 미국 문학 저작물들은 공화주의의 복음을 전수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이었으며(Ferguson, 1984: 711), 19세기 미국 문학에는 프로테스탄트 비전과 특징이 면면히 흐르고 있다. 20세기의 대표적 작가인 헤밍웨이와 Faulkner의 작품에서도 청교도 정신의 유산인 금욕과 감정의 억압이 표현되고 있다(김성곤, 1999). 청교도 정신이 너무나 지배적이어서 심지어는 억압적일 수 있다는 저항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표현되기도 하였다(예: Hawthorne의 「주홍글씨」, Melville의 「Mobi-Dick」 등). 하지만 청교도주의는 종교교리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일종의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문학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청교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전수하고 있다(김성곤, 1999: 330).

지면 거래비용이 더 큰 비개인적 거래들까지도 점차 더 넓게 비공식제도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Berger&Luckmann, 1966: 86). 즉 개인들의 행동에 대하여 상호적인 전형화가 이루어지고 제도가 수립될 때의 가장 중요한 이득은 상대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대의 행동으로 인하여 놀랄 일이 없고, 다른 개별적인 행동들을 안정화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즉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일들이 배경이 되어줌으로써 고도의 주의를 요하는 혁신을 위한 길이 열리며, 더 큰 거래비용을 갖는 노동의 분업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 3. 합리적 선택에 의한 협력 가능성 증가

전문경영인들의 정직한 행동이 단지 습관화되어 있는 행동이 아니라 이성적인 계산의 결과일수도 있다. 전문경영인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경영윤리를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기회주의적인 행동의 기대이익을 계산한 결과에 따라 행동한 것일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미국 사회의 전통은 게임의 전제조건으로서 행동의 선택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 다른 대다수의 전문경영인들이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회주의적인 사람까지도 자신의 평판의 유지를 위하여 사회규범을 유지할 유인이 높아진다(Guttman, 2001: 118). 또 이미 충실한 계약의 이행(commitment)을 존중하는 풍토(Macaulay, 1963: 63-64)가 형성되어 있다면 이 역시 행위 규범의 준수의 동기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체스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즐길 수 없고, 체스를 즐기려면 상대를 속이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Posner, 1997: 365), 전문경영인 역시 경제 게임에 함께 참여하고 그 성과를 나누기 위해서는 행동규범을 지키는 것이 유리하다.

게임이론에 따르면 사회구성원들이 의사소통이나 사전적인 조정 그리고 심지어는 합리성에 대한 가정이 없이도 최초의 상황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특정한 전략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쪽으로 균형이 성립하며, 일단 그쪽으로 성립된 이후에는 다른 균형으로 가기 어려운 경로의존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사회인구의 과반수가 좌측통행을 택하고 있으면 우측통행을 택하던 사람도 좌측통행을 선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좌측통행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자기구속력을 가진 제도가 자연적으로

탄생될 수 있으며, 이것이 하이에크가 말한 ‘자생적 질서’다(이근, 2002: 182-184). 그렇다면 뉴잉글랜드나 자치적인 서부개척 공동체에서처럼 정직이나 계약의 준수가 이미 사회적인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행동규범이 형성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 되겠는가? 설사 자신의 이익을 놓고 이성적으로 계산을 해 보더라도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처럼 너도나도 분식회계를 하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설사 밝혀지더라도 큰 흠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누구나 그렇기 때문이다. 그런데 절대 다수가 분식회계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완전히 다르다. 나만 나쁜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정직하게 경영하는 가운데서도 미국 경제는 발전해 왔고, 기업인들과 경영인들 그리고 근로자들은 성장의 이익을 서로 나누고 향유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부정회계를 한다면 부정회계를 통하여 막대한 부를 획득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동안 다수가 향유해 왔던 가장 확률이 높은 사회적인 성공의 기회는 놓치게 된다.

#### 4. 종합: 비공식제도의 동형적 확장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미국의 전문경영은 자신의 비공식제도에 기초하여 형성된 일종의 자생적이고 자기집행(self-enforcing)적이며 자생적인 질서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 사회의 전통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자기형성적이고, 단지 내재화되고 습관화된 규범을 따르는 과정에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집행적인 성격이 강하다. 초기 정착기에 지속적으로 미국인들과 미국 사회를 조형해 온 정직·성실·책임 등의 청교도적인 윤리를 경영인과 주주 간의 관계에 확대 적용하면 그것이 바로 전문경영이 된다는 점에서 보면 일종의 전통과 관습의 동형적 확대라고 볼 수도 있다. 과거 미국 사회의 조직관계에서 수없이 시험되었던 대리인의 선출과 대리인에 의한 업무 집행의 관행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전문경영은 전통의 모방이라 볼 수도 있다. 이미 미국인들의 내면세계와 행동습관 속에 정직이 계약의 준수가 무의식적인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비추어 보면 전문경영은 자신들의 무의식적 규범의 표현이라 볼 수도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부의 규제들이 지배구조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

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는 글래스-스티걸법처럼 채택할 수 있는 대안의 범위를 좁히는 역할, 즉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의 선택을 억제하였을 뿐이다. 법적으로 채택이 가능한 대안 중에서 실제로 어떤 대안이 선택 가능한 대안인지는 비공식제도가 제공하는 도덕적 전제가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와 역사적인 시행착오 속에서 확립된 관행이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역사적으로 학습되고 검증되어 진화된 지혜의 축적물이기 때문이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어디까지나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질서의 근원을 추적해 보는 연구다. Berle & Means(1932)가 전문경영현상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전문경영이 미국 사회의 지배구조로 확산되는 과정에 있었고, 이들을 포함한 일부 사회과학도들의 염려와는 상관없이 미국에서는 전문경영이 지배적인 지배구조로 자리를 잡았다. Berle & Means의 연구가 시작되기 이전에 지배구조에 대한 법적인 통제는 기업의 유치를 위한 경쟁의 결과로 경영인들에 대한 규제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던 회사법과 경영판단원칙에 의하여 전문경영의 재량권을 보호하는 법원의 판례가 거의 전부였다.

돌이켜 보면, 자생적 질서의 진화과정에서 법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정원사에 불과하다(institutional gardening, Offe, 1996: 52). 법의 역할은 금융자본에 의한 산업지배의 억제(Roe, 1994) 사례에서와 같이 특정한 가치를 잘라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 토기장이처럼 법을 통하여 질서를 창조하는 일은 설계자인 인간 이성의 한계와 법 자체가 갖는 치명적인 약점(예: 정치성, 경직성, 획일화에 따른 비효율성, 정보의 부족에 따른 불완전성, 적응적 비효율성 등)으로 인하여 가능하지도 않으며 결코 성공적일 수 없다. Smith, Locke, Tocquville, Weber, Popper, Hayek, North, Weingast, Greif, Huntington, Bellah 등의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도 한가지다. 자본주의 질서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기초한 자생적 질서이며,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재산권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계약의 정직한 집행을 보호하는 역할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다. 영국, 네덜란드, 서유럽 국가들과 미국, 프로테스탄트 국가들과 기독교 국가들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은

자유, 자치, 열린 대화, 자생적 질서, 자생적 습관, 자생적 문화 전통이지 결코 정부가 아니다. 개인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비공식제도 역시 종교와 전통적 규범의 진화물일 뿐임을 시사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김동욱, 「미국의 기업문화」, 『국제지역연구』, 제5권 제8호, 2004.
- 김석용, 「기업이론과 제도이론에 기초한 기업 지배구조의 체계적 이해와 정책적 함의」, 『經營論叢』 24, 2000, pp.197-247.
- 김성곤, 「미국문학에 나타난 청교도주의」, 『미국학』, 제22집, 1999.
- 노일석, 「주식회사의 사외이사: 미국의 사회이사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2002, pp.249-300.
- 도모노 노리오 저, 이명의 옮김, 『행동경제학: 경제를 움직이는 인간심리의 모든 것』, 지형, 2006.
- Micklethwait, John and Adrin Wooldridge, 유경찬 옮김, 『기업의 역사』(*The Company*), 을유문화사, 2004.
- 민경국, 「문화, 비공식제도 그리고 제도의 경쟁」, 『제도연구4』, 한국경제연구원, 2002.
- 베버·막스 저, 박성수 옮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문예출판사, 1988.
- 사공영호, 「정책과 공식제도의 비공식적 기초: 미국 기업의 지배구조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15권 제3호, 2006.
- 송병락, 『마음의 경제학』, 박영사, 2001.
- 송재룡, 「종교세속화론의 한계: 탈세속화 테제의 등장과 관련하여」, 『사회와 이론』, 제7집, 2005.
- 안경환, 「미국에서의 “법과 문학” 운동」, 『문학과 영상』, Vol.2, No.1, 2001.
- 에치오니·할레비 저, 윤재풍 옮김, 『관료제와 민주주의』, 대영문화사, 1996.
- 워드·랄프 D, 『이사회 대변혁』, 한국증권제도연구회 편역, 21세기북스, 1997.
- 윤보욱, 「미국회사법에서의 이사의 의무와 경영판단의 법칙」, 『비교사법』, 제7권 제2호, 2000.
- 이 근, 「제도와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진화경제학적 분석」, 『제도연구4』, 한국경제연구원, 2002.
- 이민창, 「재산권 이론의 정책학적 기여에 관한 소고: 이론적 함의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44권 제2호, 2006.

- 이성웅, 「미국에 있어서 Corporate Governance와 사외이사제 성립의 개요」,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8, 1999, pp.169-186.
- 이장식, 「미국민주주의 정치사상에 끼친 종교적 가치관의 영향」, 『신학사상』, 제21집, 1978.
- 이형대, 「미국의 지적 전통과 윌리엄 제임스의 개인주의 사상」, 『미국사연구』, 제22집, 2005.
- 임영재 외, 『시장개혁의 추진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측정』, 한국개발연구원, 2003.
- 정봉진, 「미국 회사법상의 경영판단의 법칙」, 『경영법률』, Vol.13, No.1, 2002.
- 정용석, 「하르낙과 기독교의 본질」, 『신학사상』, 제119집, 2002.
- 정호열, 「미국의 기업지배구조 변천과 그 현황: 주요 주회사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6권 제2호, 1999.
- 조영철, 「미국과 독일은 왜 달라졌나? : 소유, 지배구조의 차이를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제50집 제2호, 2002, pp.5-42.
- 존스·제프리 디, 「미국기업문화」, 『국제지역연구』, 제3권 제4호, 2000.
- 차성화, 「막스 베버와 근대의 의미 세계」, 학문과 사상사, 1997.
- 프랭클린·벤자민 저, 조민호 옮김, 『가난한 리처드의 달력』, 휴먼하우스, 2006.
- 최강득·송준협·안홍복, 「기업지배구조와 회계정보 유용성」, 『産業經濟研究』 제17권 제2호 통권 제52호, 2004, pp.623-642 .
- 하연섭,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진화와 정책연구」, 『행정논총』, 제44권 제2호, 2006.
- 하태수, 「영국의 기업 지배구조와 정부개입」,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2권 제4호, 2002, pp.43-58.
- 해롤드버만·김철, 『제도: 문명과 역사적 법이론』, 민영사, 1992.
- 홍복기, 「미국회사법에 있어서 이사책임의 구제제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4권, 1986.
- 황말동, 「한국기업의 기업지배구조와 도덕성에 관한 고찰」, 『産業經營』, 제28집, 2001, pp.111-124.
- 황혜성, 「루이 하츠의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에 관한 소고」, 『미국학』, 서울대학교미국학연구소, 제13권, 1990.

- Anderson, Terry L. and P. J. Hill, "An American Experiment in Anarcho-Capitalism: the Not So Wild, Wild West,"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3, No.1, 1979.
- Bellah, Robert N., Richard Madsen, William M. Sullivan, Ann Swidler, and Steven M. Tipton, *Habits of the Hear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 Bercovitch, Sacvan, *The Puritan Origin of the American Self*, Yale Univ. Press, 1975.
- Berger, Perter L. and Thomas Luckmann,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Bantam Dell Pub Group, 1966.
- Berle, Adolf A. and Gardiner C. Means, *The Modern Corporation & Private Property*, Transaction Publishers, 1932.
- Black, Bernard S., "Is Corporate Law Trivial?: A Political and Economic Analysis,"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Vol.84, No.2, 1990, pp.542-597.
- Boke, Robert H., 신광제 역, 『반트러스트의 모순』, 교보문고, 1978.
- Carr, Edward H. and R. W. Davis, 김택현 역, *What Is History*(1987), 『역사란 무엇인가』 까치글방, 1997.
- Coase, R. H.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N.S.* 4, 1937, pp.386-405.
-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y Commission,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 1987-1997: An Analysis of U.S. Public Companies*, 1999.
- Denzau, A. T. & D. C. North, "Shared Mental Models: Ideologies and Institutions," Economics Working Paper Archive at WUSTL, 1993.
- Dequech, David, "Cognitive and Culture Embeddedness: Combining institutional economics and economic sociology,"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37, No.2, 2003.
- DiMaggio, Paul, "Cognition and Culture,"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23, 1997, pp.263-287.
- EasterBrook, Frank H. and Daniel R. Fisher, 이문지 역, *The Economic Structure of Corporate*, 「회사법의 경제학적 구조」, Havard Univ. Press, 자유기업센터, 1998.
- Etzioni, Amitai, "Social Norms: Internalization, Persuasion, and History," *Law & Society Review*, Vol.34, No.1, 2000.

- Ferguson, Robert A., *Law and letters in American Culture* Havard Univ. Press, 1984.
- Friedman, Lawrence M., 안경환 역, 『미국법역사』, 대학교과서, 1988.
- Fukuyama, F., *Trust: the social virtue and the creation prosperity*, The Free Press, 1995.
- Greif, Avner, "Historical and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88(2), 1998, pp.80-84.
- \_\_\_\_\_, "Self-enforcing Institutions: Comparative and Historical Analysis," prepared for presentation in European School on New Institutional Economics (ESNIE), 2004.
- \_\_\_\_\_, *Institutions and the Path to the Modern Economy: Lesson from Medieval Trade*, Cambridge Univ. Press, 2006.
- Guttman, Joel M., "Self-enforcing reciprocity norms and inter-generational transfers: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1: 2001, pp.117-151.
- Hayek, F. A., 저, 신중섭 역, 「치명적 자만」, 자유기업센터, 1996.
- \_\_\_\_\_, *Law, Legislation and Liberty*, Chicago Univ. Press, 1982.
- Helmke, Gretchen and Steven Levitsky, "Informal Institutions and Comparative Politics: A Research Agenda," *Perspectives on Politics*, Vol.2, No.4, 2004.
- Holcombe, Randall G., "Government: Unnecessary But Inevitable," *The Independent Review*, Vol.13, No.3, 2004, pp.325-342.
- Holmstrom, Bengt & Steven N. Kaplan, "The State of U.S. Corporate Governance: What's Right and What's Wrong?," *Journal of Applied Corporate Finance*, Spring, 2003, pp.8-20.
- Huntington, Samuel, 형선호 옮김, 『미국』, 김영사, 2006.
- Kahan, Dan M., and Donald Braman, "Cultural Cognition and Public Policy," *Yale Law and Policy Review*, Vol.24, 2006.
- Kasper, Wolfgang & Manfred E. Streit, *Institutional Economics: Social Order and Public Policy*, Edward Elgar, 2000.
- Lorsch, Jay, "Pawns or Potentates: the reality of America's corporate,"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Vol.4, No.4, 1990.
- Louis Hartz, *The Liberal tradition in America: an interpretation of American political*

- thought since the Revolution*, Harcourt Brace Jovanovich, 1955.
- Macaulay, Stewart, "Non-Contractual Relation in Business: A Preliminary Stud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28, 1963.
- Manning, Susan, *The Puritan-Provincial Vision*, Cambridge Univ. Press, 1990.
- Mayhew, Anne, "The Beginnings of Institutionalism,"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21, No.3, 1987, pp.971-998.
- Miller, Perry, *The New England Mind: The Seventeenth Century*, Beacon Press, 1961.
- Mizruchi, Mark S., "Berle and Means revisited: The Governance and Power of Large U.S. corporation," *Theory and Society* 33, 2004, pp.579-617.
- NCFRR (National Commission on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 *Report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 1987.
- North, D. C., "Economics and Cognitive Science," Washington University, *Working Paper*, 1996.
- \_\_\_\_\_,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Economic Chan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 \_\_\_\_\_, and R. P. Thomas, *The Rise of the Western World: A New Economic History*, 1973, 이상호 역, 『서구세계의 성장: 새로운 경제사』, 자유기업센터, 1999.
- \_\_\_\_\_, *Institution,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_\_\_\_\_, William Summerhill, and Barry R. Weingast, "Order, Disorder and Economic Change: Latin America vs. North America," in Bruce Bueno de Mesquita and Hilton Root (eds.), *Governing for Prosperity*, Yale University Press, forthcoming, 2000.
- Offe, Caluse, *Modernity and the State: East, West*, The Mit Press, 1996.
- \_\_\_\_\_, "Designing Institutions for East European Traditions," *Public Lecture*, No.9,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1993.
- Olson, Mancur,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1982), 최광 역, 『국가의 흥망성쇠』, 한국경제신문사, 1990.

- Posner, Richard A., "Social Norm and the Law; An Economic Approach,"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87, No.2, 1997.
- Putnam, T. D.,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Roe, Mark J., *Strong Manager and Weak Owners: The Political Roots of American Corporate Finance*, Princeton Univ. Press, 1994.
- Schwartz, Mark S., Thomas W. Dunfee and Michael J. Kline, "Tone at the Top: An Ethics Code for Directors,"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58, 2005, pp.79-100.
- SEC (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 "Report Pursuant to Section 704 of the Sarbanes-Oxley Act of 2002," 2002.
- Senate Committee on Governmental Affairs, "Financial Oversight of Enron: The SEC and Private-Sector Watchdogs," 2002.
- The Economist, "Corporate, Maybe: but governance?," Vol.367, issue 8329, 2003, p.11.
- Tocquville, Alex, 임효선 역, 『미국의 민주주의』, 한길사, 1997.
- Tribe, Laurence H., "Policy Science: Analysis or Ideology?"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Vol.2, No.1, 1972, pp.66-110.
- Weber, Max,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George Allen & Unwin, 1976.
- Weingast, Barry R., "The Economic Role of Political institutions: Market-Preserving Federalism and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Vol.11, No.1, 1995.
- Welch, Jr. John F., Jack: Straight From the Gut, 강석진 감수 · 이동현 옮김, 『잭웰치 · 끝없는 도전과 용기』, 청림출판, 2001.
- Wildavsky, Aron, "Choosing Preferences by Constructing Institutions: A Cultural Theory of Preference Formatio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81, No.1, 1987, pp.3-22.

## The Origin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Informal Institutions Enabling Managerial Corporate Governance of U.S.

Sakong, Yung-ho

This study explores the origin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informal institutions which enables managerial governance mechanism of U.S. to be formed and to work stably. According to this study, it is not the formal institution but the informal institution that constructs the bas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system. Formal institution including law and government regulation can affect over the selection of governance methods. According to this study, however, actual corporate governance system of U.S. which allows relatively huge power to top manager has been stemmed from simple isomorphic imitation of informal customs and habits which take it for granted to be honest and industrious.

According to this study, ethical preconditions for managerial corporate governance, such as honesty, industriousness, compliance of contracts, etc., have been coming down from historical origins and experiences of Puritanism, frontier spirit, autonomous organizing tradition of firms, limited government power and absence of feudalism in case of America. Through the internalization of Puritan norms and the learning from voluntary cooperation for business and frontier pioneering, informal institution are formed and institutionalized as the habits of minds. Once established as an informal institution, it develops diverse vehicles inheriting itself. Formal institutions, law, constitution, writings, films, proverbs, medias, organizations, participation, language, and all that affect human

mind and behavior can be the means to inherit norms and educate business ethics. As a result of constant and repeated learning, honesty becomes internal and unconscious norm. Therefore, according to this study, corporate governance system of U.S. which allows relatively huge power to top manager could be stemmed or extended naturally and easily from informal institutions.

Key words: informal institution, managerial corporate governance, Puritanism, habituation, institutionalization